



[낙농경영] 아일랜드 낙농업계, 전기 요금 상승에 어려움 가중

-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 요금 부과로 오후 착유 부담



아일랜드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일정 시간대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함에 따라,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내 에너지 공급 문제 심화로 당국은 전력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 사용량이 몰리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의 전기 요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전력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평균 요금이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후 착유를 실시하는 낙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폭등 및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farmersjournal.ie, 8월 31일자 >

[시장동향] 英, 동물권 단체 시위로 우유 부족 및 가격 상승 우려

- 유가공장 및 유통 공급망 차단으로 유제품 부족 및 가격 상승



영국 동물권(動物權) 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 가운데,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유제품 부족은 물론 가격 상승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동물권 단체인 Animal Rebellion은 식물 기반 식품 홍보는 물론 축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00명 규모의 시위를 통해 2주간 영국 전역 슈퍼마켓에 우유 및 유제품 공급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가공장은 물론 유통 공급망이 차단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전국적으로 우유 및 유제품 부족 사태는 물론 이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알라푸드 영국지사는 공급망 보호를 위해 경찰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일부 안티데어리 그룹이 마트에 우유를 쏟아 붓는 등의 시위를 벌이자 오히려 소비자는 물론 채식주의자들의 반감을 산바 있다. < 출처 : nocamels.com, 9월 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